

1. 출발 전

교환 학생 합격 발표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TU Graz 쪽에서 교환 학생 대상으로 이메일이 발신됩니다. 이메일에는 입국 전까지 해야할 행정적 절차들이 안내되어 있으며, 포함된 링크에 제시된 워크플로우를 하나씩 처리하면 되니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발 전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은 아마 비자 발급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먼저 오스트리아 교환학생 다녀오신 분들이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명사진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6개월 이전에 발급된 여권사진과 같으면 거절당합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 보장금액이 3만유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거절 당하는 일 없이 한 번에 비자발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철저한 예약제이니 반드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주세요! 급하게 비자 발급 받으려면 상당히 피말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시기에 관해 팁을 드리자면, 유럽의 겨울은 화창한 날씨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가을 학기의 경우, 학기가 시작하기 전 여름에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봄 학기에는 학기가 끝나고 난 뒤 여름에 여행 하는 것이 좋겠네요.

2. 오스트리아 생활

2-1. 생활 전반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정돈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라츠의 거리는 유럽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대중 교통 시스템도 체계적이라 생활하면서 이동이 불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물론 대중 교통 가격은 부담스러운 편이기에 중고 자전거를 구하시면 아주 용이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6시가 지나면 갈같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고로, 일요일 혹은 공휴일을 대비하여 미리 장을 봐 두어야 한다는 점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그라츠 소개

그라츠라는 도시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긴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자면 소도시에 가깝습니다. 도심(Jakominiplatz, Hauptplatz)이 거리 몇개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도 작고, 그 마저도 평소에는 한적한 편입니다. 관광객 역시 아주 적은 편이어서 현지인의 생활을 가까이서 경험하기 아주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라츠의 장점을 꼽자면, 그라츠가 오스트리아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동유럽 국가로의 여행이 아주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독일 뮌헨,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슬로

베니아 류블랴나와 마리보,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모두 당일치기 혹은 주말 여행으로 충분히 다녀올 만한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연휴나 주말을 잘 활용하신다면 모두 교환학생 생활을 하시면서 어렵지 않게 여행하실 있으니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라츠로 교환학생을 오시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3. 거주장소

거주 장소의 경우 저는 OEAD의 Neubaugasse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더블룸을 사용하여 보증금 750유로에 매달 315유로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고, 싱글 룸을 사용하시면 매달 395 유로의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Neubaugasse 기숙사는 보통 5~6명이 구역, 샤워실 및 화장실을 공유하며, 한 플랫에 4~5개의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마트와 중앙역도 가깝고 지불하는 월세에 비해서는 시설 및 넓이는 만족스러웠으나, TU Graz에서 교환학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학교까지 거리가 먼 편이니 통학을 생각하시면 다른 기숙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Steyrergasse와 Moserhofgasse 역시 많은 교환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입니다. Steyrergasse는 캠퍼스와 가장 거리가 가깝지만, 전반적으로 생활 공간이 좁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Moserhofgasse는 캠퍼스와의 거리는 Steyrergasse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시설은 그 어떤 기숙사보다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신의 월세는 조금 더 비싼 편이니 이런 조건을 고려하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고한 교환학생 후기에서 Neubaugasse를 강력 추천하여 이 곳으로 선택했지만, 다른 기숙사를 선택했다면 통학이나 학교 생활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넓은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Neubaugasse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라츠에는 OEAD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외에도 다양한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Wist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며, 잘 알아보시면 Oead 기숙사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좋은 기숙사도 있다고 하니 시간 여유가 있다면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기숙사가 아닌 일반 자취방을 렌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학기가 끝날 즈음이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기숙사보다 쾌적한 시설을 가진 자취방도 꽤 있으니 페이스북 그룹(Erasmus Graz)이나 Willhaben(오스트리아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4. 식생활

오스트리아의 식문화는 전반적으로 독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육류나 감자를 베이스로 한 요리가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술은 Puntigamer나 Gösser와 같은 맥주입니다. 외식 물가는 몹시 비싼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자재를 사서 기숙사에서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식자재 가격은 한국보다도 저렴한 편이어서, 요리를 주로 해서 식사를 해결하신다면 식비는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Jakomini Platz에 있는 아시안 마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리만 가능하다면 크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TU Graz 학교 생활

3-1. 학교 생활 전반

TU Graz의 시스템은 한국 대학교의 시스템과 아주 상이합니다. 우선, 시간표가 한국의 대학교 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교수님 사정에 따라 계속 변동되거나 단 기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Intensive Course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시간표가 매주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Studo라는 앱을 이용하여 매 주마다 그 주의 수업 일정표를 확인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국과의 큰 차이점은 수업마다 종강 시기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전공 수업을 많이 수강하였기에 2월 초에야 모든 수업이 종강했습니다만, 적당히 수업을 잘 고른 경우에는 1월 초 혹은 말에 수업이 종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강 신청 외에도 과목 별로 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수업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험을 패스하면 학점이 나온다는 점 등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시간표를 짜신다면 저와 같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2. German Intensive Course

TU Graz의 경우 유럽 각지 및 전 세계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많은 편이기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개강 1달전(가을학기의 경우 9월)에 German Intensive Course(이하 GIC)라는 독일어 단기 강좌를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에 4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독일어 기초회화나 지식을 쌓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일어를 이전에 배워 보신 적이 없다면 꼭 수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로드가 적은 편이어서 같은 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친해질 기회가 많은 편이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최적의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German Semester Course라는 독일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이 가능하고 수업 형식은 비슷하지만 주 1회 1시간 30분이라는 적은 수업 시수 때문인지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어 공부를 학기 중에도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Semester Course보다는 Tandem과 같은 언어교환 프로그램과 독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3. 일반 수업

제 전공인 기계공학의 경우 학부 수업에는 영어 강의를 한 강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과 전공 및 대학원 수업을 많이 수강했었는데, 로드가 많은 수업이 많아 시험 기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부의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베이스를 수강하다가 학기 중간에 넘쳐나는 로드를 버티지 못하고 드랍했습니다. TU Graz 학생들은 학업에 진지한 학생들이 많아 보였고, 수업 자체를 패스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 교환 학생을 오시는 분들은 교환 생활의 목적을 잘 생각해보시고, 여행에 집중할 것인지 학교 생활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하게 시간표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또한 Egiraffe라는 기출 공유 사이트를 활

용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적 시스템은 1~5까지 성적이 매겨지며, 1은 상위 10퍼센트 이내로 가장 좋은 학점이고 5로 갈수록 낮은 학점입니다. 학점의 경우 ECT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2 ECTS가 서울대학교의 1학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30 ECTS를 전공수업만으로 수강했는데 로드가 많은 편이어서 학기 중에는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할 때는 수업시간 15시간당 1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TU Graz의 경우 학기가 14주여서 실제로 수강한 학점에 비해 인정되는 학점은 적은 편입니다. 이를 잘 고려하셔서 교환 학생 생활 중에 무엇에 집중하실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학업 보다는 여행이나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3-4. 인턴 및 기타 활동

저는 전공 수업 수강 중 교수님이 인턴을 모집하셔서 학기 중 그리고 학기 종료 후 약 2주간 재료 역학 관련 랩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랩 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곳의 연구 환경이 확실히 수평적이라는 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좋은 인턴 자리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인턴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저는 운이 좋아서 영어만으로 인턴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인턴 자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독일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턴 활동을 교환 학생 생활 중 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 미리 독일어를 어느 정도 수준 공부해 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제로, 유급인턴의 경우 금전적으로 빠듯한 교환학생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독일어로 의사소통 가능자를 선발합니다.

4. 소감

교환 학생 생활은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내 시야가 얼마나 협소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모자란지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기에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공과대학 동창회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